

시·구·교 손잡고 86만 학생에 '식재료꾸러미' 안긴다

서울시,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1인당 10만원어치 농축산물 제공 무상급식 예산 활용... 총 860억원

서울 지역의 86만 초·중·고교생의 각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이 지원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와 학부모를 돕기 위해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이 장기간 중단돼 식재료 공급 농가와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친환경 학교급식 미지급 예산을 활용해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김영종 구청장협의회장이 7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사업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1인당 10만원어치의 농축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6만원은 각각 3만원 상당인 쌀과 농축산물로 구성된 '식재료 꾸러미'로 현물 지급하며 나머지 4만원은 각종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 포인트로 지원한다.

현물은 학부모(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배송지를 입력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전송하는 방식, 농협몰 포인트는 학부모의 농협몰 ID에 포인트가 충전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 될 전망이다. 농협몰 포인트는 7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 86만명이다. 중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중복 지원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교육청은 현재 각 자치구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수를 2만5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만5000명의 사정을 재검토해서 중복지원을 무릅쓰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총 8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사업비 대부분은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으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를 비롯한 급식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개학이 미뤄지면서 식재료비에 부담을 안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핵심적인 투자이며 그 근간이 되는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 생산물의 40%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구조인데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져 생산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다"며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맞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 생산물의 40%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구조인데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져 생산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다"며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맞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 생산물의 40%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구조인데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져 생산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다"며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맞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장 신축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시설 확대 연간 교육 가능인원 430→1000명 반기별 250명씩 연 500명 선발

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강남구 개포동 153번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 시설을 추가로 신축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8월 설계 공모, 8~12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년 착공 등 단계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시설이 완공되면 아카데미의 교육 가능한 연간 인원이 현재의 430명(협업·창의의 공간 등 포함 시 최대 7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총 소요 예산은 237억원이다.

신축 시설은 현재 아카데미의 열림관(강당)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6576.33㎡)로 들어선다. 고정석 600석, 자유석 150석 규모의 코딩룸과 멘토링룸, 휴게공간 등이 생긴다.

추가 교육공간 신축은 3월 1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4월 29일 서울시의회 심의·의결로 승인됐다.

작년 12월 개관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설립됐다.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양

기관이 함께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는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이다. 교육 기간은 2년이며 비학위 과정이다. 반기별로 250명씩 연 5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김현정 기자

건축공사장 대상 화재예방 긴급점검

서울시 연면적 2000㎡ 이상 현장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	인명피해(명)		
		소계	사망	부상
계	452	23	3	20
2019년	126	7	2	5
2018년	161	5	0	5
2017년	165	11	1	1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경기 이전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5일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7~8일 2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입회·감독 하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점검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총 452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죽고 20명이 다쳤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전체의 78.1%(353건)에 달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담배꽂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 54건(15.2%), 가연물 근접 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 등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감염병 매개 진드기 서식조사

서울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산책로, 천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할 수 있는 참진드기의 서식 분포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SFTS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다. 고열(38~40도)과 함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시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과 시민,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서식 분포 조사를 한다.

시는 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복지시설 종사자 65% "직장내 괴롭힘 경험"

서울시, 온라인 토론회 성료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0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65.1%가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괴롭힘 경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가 5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괴롭힘 45.3%, 정신적 괴롭힘 31.8%, 성적 괴롭힘 10.9%, 신체적 괴롭힘 3.9%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직장내 괴롭힘으로는 근로안전 미확보 32.6%,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25.9%, 종교적 자유침해 19.6%, 비윤리적 업무 강요 16.7%, 특수관계자의 업무 강요 15.2%, 이용자에 대한 학대 신고 저지 6.8% 등이 있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근무 의욕이 감퇴하고(59%),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47.9%), 분노나 불안을 느끼는

/김현정 기자



(41%) 경우가 많았다. 병원진료 및 약을 복용하는(5.4%) 경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5.2%)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라이브와 라이브 서울 등 온라인 채널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무형중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한신대, 12월까지 '강북구 전환마을랩 프로젝트'

8개 사업자 중 대학은 유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 서울시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이하 '시전환랩 프로젝트')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신대의 실험 주제는 '강북구 전환마을랩 프로젝트'이며 결정보조금은 8900여만원으로, 8개의 사업자중 대학은 한신대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도시전환랩 프로젝트는 시민의 일상 생활방식을 바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자원순환,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전환 분야에



한신대 전경

서 민간산학 협업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이다.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은 강북구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여러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lhj@